

# 국제정상회의의 경호안전 실태 및 대책방안

권정훈<sup>†</sup> · 이세환<sup>\*</sup>

경동정보대학 경찰경호합기도과 · \*해천대학 경찰경호과  
(2004. 11. 1. 접수 / 2005. 6. 14. 채택)

## The Protection in Security Situation and Effective Ways in the International Major Meetings

Jeong-Hun Kwon<sup>†</sup> · Sae-Hwan Lee<sup>\*</sup>

Kyungdong College of Techno-information

<sup>\*</sup>Department of Police & Security Service, Hyecheon College

(Received November 1, 2004 / Accepted June 14, 2005)

**Abstract** :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arts in the international major meetings is to stand attendants over various danger and keep the safe of the nation.

The International major meetings such as the summit, the athletic meeting are often held around the world while the activity of the terrorists unseen increases at the high speed.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present some effective ways for successful opening of the international event. Some of the proposals that I come up with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mooth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the control for NGO's demonstration, the training and the best use of security personnel, finally the understanding of peoples and forming sympathy from them.

**Key Words** : international major meetings, protection in security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세기의 양극적 이데올로기 대립이 사라지고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는 지금 전지구화(全地球化:Globalization)의 와중에서 20세기의 세기말을 마감하기 전 1998년 남·북한 정상들이 만나 회담 후 6·15 남북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주변국들의 초미의 관심대상 대상이 되었으며 통일 분위기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그 이후, 21세기에 빈 라덴이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감행하여 9·11 테러의 분위기로 각 나라는 불안의 위기에 휩싸이게 됐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슬로건 하에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이 또한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세계는 공포에

휩싸이게 됐다. 이러한 테러의 집단으로 인해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세계 경호기관들의 심적 부담감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제 하나의 권역 속에서 치열한 경쟁 즉, 적자생존의 논리가 더욱 지배적인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세계 각국 정상들은 자국이익 추구의 "경제 최우선"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상회의, 즉 국제적 국제행사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sup>1)</sup>. 실제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IPU 총회, EU 정상회담, ASEM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제정상회의 시 경호 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행사지속 개최가능 여부를 떠나 주최국의 외교적 위신은 물론 그 사건 자체가 미치는 파장은 실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정상회의 시 국가요인들의 신변안전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경호안전대책활동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정상회의 시 행사일반에

<sup>†</sup>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jhkwon@kdtc.ac.kr

관한 기초를 토대로 각국의 경호안전 활동을 분석하고 최근까지 각국에서 개최된 IPU총회, EU정상회담, ASEM 정상회의 등 국제정상회의에서 발생한 경호안전 활동 분석에 대해 국내·외를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 개최될 국제정상회의에서의 위태기도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경호안전 활동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 1.2. 연구의 방법

본 논문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단행본, 경호관련 팸플릿 및 경호·경비 관련 석·박사 논문들과 기밀사항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자료를 참고하여 국제행사의 경호안전 실태와 대책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국제정상회의 시 경호 상 안전문제 활동을 바탕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방법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을 서론부분에 제시하였다.

제2장은 경호안전 활동의 이해를 고찰해 보았다.

제3장은 국제정상회의에 있어서 경호안전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국내·외를 조사하여 보았다.

제4장은 경호안전 활동의 실태 및 문제점을 통해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행사개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향후대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1.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의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각종 국제정상회의 중 국내·외에서 개최된 IPU총회, EU정상회담, ASEM정상회의의 소수행사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경호활동 안전대책을 전체 국제행사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또한, 이외의 타 경호안전 활동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 대상은 다소 제한적이다.

## 2. 경호안전 활동의 이해<sup>2)</sup>

국가적 의미에서 안전 활동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계되는 기밀이나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등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치려는 간

첩, 기타 불순분자를 경계하고 방지하기 위한 탐지, 조사, 차단 등의 소극적·적극적인 사전예방활동을 말한다.

경호안전 활동이란 피경호인의 움직임을 노출시키지 않거나 공식행사로 인하여 행사 일정이 노출이 되더라도 경로 및 이동방법 등을 보안조치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 암살 기도자들에게 표적을 은폐시키거나 테러, 저격 기타 위해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음으로써 피경호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사전예방활동이다.

경호경비업무의 근본목적은 피경호인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굳건히 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신뢰와 더불어 국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경호근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완벽한 경호실시를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오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치는 무수히 많은 위태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피경호인의 움직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경호보안을 철저히 한다면 피경호인의 안전은 더욱 보장될 것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경호안전에 대하여 재삼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 3. 국제정상회의의 경호안전 실태 및 문제점

국제정상회의 시 주최 측에서는 경호안전 활동 문제에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는 테러기도분자의 입장에서는 효과 면에서 더 이상의 호기가 없기 때문이며 테러대상 또한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아도 되고 정상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회의장과 시설은 대부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정확히 알려지기 때문에 보다 용이하게 테러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sup>.

따라서 행사 참석요인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기관에서는 행사 종료 시까지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최근 개최된 주요 국제정상회의에서의 경호안전 활동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다가오는 국제정상회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3.1. 국제정상회의의 경호안전 실태

#### 1) IPU 서울 총회

##### (1) 개요

93개 회원국과 10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서울총회는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었다. IPU집행위원장인 아메드 파시 소루루 이집트국회의장을 비롯, 41개 국가 국회의장이 내한하였고 국회의부의장 및 장관급 인사도 40여명에 달했다. 대회는 총회와 각종 위원회를 양측으로 하여 이뤄졌으며 총회에서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대한 일반토론과 함께 추가의제 및 긴급의제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sup>4)</sup>.

### (2) 경호안전 활동 및 운용

특별경호·경비대책의 목적은 각국 대표단 중 의장급 인사 등 주요 인사들의 안전 확보와 당시 환경잡비서 망명사건 등으로 각종 테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대책수립이 요구되었다. 이에 대한 방침으로 보안업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고유기능에 따른 분야별 안전 활동 등 협조요청과 총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비 노출 안전 활동을 수행하였다. 주요인사 개별 경호는 각국 대표단 중 의장급 인사 등 주요인사의 경호요청 시 경찰청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sup>5)</sup>.

### (3) 평가

김포세관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한 X-Ray 투시기가 노후 되어 각국 대표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향후 각종 국제회의 등을 대비한 신 기종 구입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 현 시국의 특수상황에 기인하여 각 행사장 출입구에도 급속 탐지기를 설치·운영하였는바, 이는 국제행사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필요하였으나 행사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출입자에 대하여 검색을 함에 있어 형식적인 면을 탈피하기 어려웠다. 또한 각 행사장마다 관할 경찰서가 각각 달라 보안업무를 위해 지원된 경찰관이 행사장마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방법 등에 관하여 보안부와 경찰청측에 통일성을 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sup>6)</sup>.

## 2) EU 정상회담

### (1) 개요

1999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쾰른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의 주요안건은 새로운 EU 안보정책(GASP 직책 신설), EU 가입국 확대 문제 등이다. GASP(독

일어 약칭)란 EU의 대외안보방위 담당 장관급 직책으로 1999년10월 임기가 만료되는 NATO의 「슬라나」 사무총장이 내정되었다<sup>7)</sup>.

### (2) 경호안전 활동 및 운용

안전 활동 준비사항으로 단계별 준비상황을 5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는 행사시작 1년 전인 1998년 하반기 6개월이었고 2단계는 1999년 1/4분기 3개월이었으며 3단계는 1999년 4~5월 까지였다. 4단계는 1999년 5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행사기간이었으며 마지막으로 5단계는 1999년 6월 21일 이후 강평·종합평가 기간으로 두었다. 기관별 임무는 헌법보호청, 경찰, 연방 및 지방 정부기관의 역할분담으로 임무를 나누었다. 헌법보호청의 임무는 수사권한은 없으며 행사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관계기관 전파, 정보기관의 무기는 정확한 정보이며 EU 정상회담 반대세력들의 정치적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다. 경찰의 임무는 각국 정부수반 등 대표단에 대한 신변보호이고 회의장소·숙소 시설보호, 이동경로 보호, 원만한 회의진행 지원이다. 연방 및 지방 정부기관의 역할분담으로 EU 정상회의 안전 활동은 해당 주에서 담당하되 연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다<sup>8)</sup>.

### (3) 평가

좌익세력들은 EU 정상회담에 맞춰 약 5만 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였는데 주 헌법보호청은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인가 비평화적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했고, 외국 쿠빈들의 차량소통을 어떻게 원활히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주·쾰른 시 경찰은 물론 다른 주 경찰까지 지원받아 행사장 주변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 특별한 불상사 없이 효율적으로 대처한 바 있다. 이외에도 EU 정상회담 직전 「PEOPLE'S GLOBAL ACTION」 (PGA)이라는 단체의 소행으로 보이는 통신망 절단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헌법보호청은 테러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시위발생 시 마다 내부 협조자 구축에 노력, 행사기간 중 협조자와 핸드폰을 이용, 24시간 비상 연락체제를 유지하는 등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였고 협조자를 통해 입수된 정보를 종합분석, 위협세력들의 전반적인 활동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경찰과 정보기관의 이러한 효율적인 대처활동으로 특별한 불상사 없이 행사를 안전하게 종료하였다<sup>9)</sup>.

### 3) ASEM 정상회의

#### (1) 개요

2000년 10월 19일~10월 21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 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The Third Asia-Europe Meeting)는 26개국 정상이 참석한 다자간 국제회의로 건국 이래 최대의 국제회의이자 경찰로서는 최고의 경호행사였다.

제 3차 ASEM회의에서는 아시아 10개국과 유럽 15개국, EU집행위원회 등 총 26개 국가에서 국왕 1명, 대통령 4명, 총리 16명, 부총리 2명, 외무장관 2명, EU위원장 1명 등의 외빈과 8명의 정상부인이 참석하였으며,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COEX 인터콘티넨탈, 메리어트, 신라, 하얏트, 르네상스, 리츠칼튼 등 총 7개 호텔이 정상 숙소로 이용되었다<sup>10)</sup>.

#### (2) 경호안전 활동 및 운용

경호 안전 활동의 목표는 제 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각국 정상 및 대표단의 신변보호와 원활한 활동 및 행사장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방침은 대통령 경호실 주관하에 각종 경호안전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범국가적 총력 경호안전체제를 확립하고 1, 2차 ASEM 행사 및 각종 다자간 국제회의 관례에 준한 수준의 경호제공이다. 경호경비의 정부 대책기구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ASEM 준비위원회, 외교통상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ASEM 준비기획단, 대통령 경호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ASEM 경호안전 통제단이 운영되었고, 경찰 준비기구로는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관을 위원으로 하는 ASEM 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ASEM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단계별 추진을 보면 제 1단계(1998년 4월 1일~4월 11일)는 각종 기초자료 수집이고 제 2단계(1999년 4월 12일~2000년 2월 29일)는 기본계획 및 조직구성 단계와 경호실 경호안전통제단 연락관 파견 및 ASEM 경호 추진단 구성 및 확대이다. 제 3단계(2000년 3월 1일~6월 30일)는 행사기반 구축 단계와 ASEM 대책위원회 구성 및 신세계 종합치안대책 수립 그리고 경찰지원부 구성·파견이며 제 4단계(2000년 7월 1일~9월 30일)는 세부시행 계획 수립 및 검토단계와 각 기능별 교육, 세부 시행계획 수립, 상황실 개설, ASEM 경찰 경호경비단 발족이고 제 5단계(2000년 10월 1일~10월 10일)는 최종 점검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제 6단계(2000년

10월 11일~행사 종료 시)는 경호경비 실시 및 평가이다<sup>11)</sup>.

#### (3) 평가

첫째, 세련되면서도 완벽한 경호경비를 실시함으로써 한국경찰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함과 동시에 2005년 APEC을 대비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였다. 둘째, NGO 등에 대한 집회·시위 관리를 완벽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정된 모습과 경찰의 치안역량을 과시하여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셋째, 행사장 주변을 특별 치안강화 지역으로 설정, 3선 개념에 의하여 집회·시위에 대비, 헬기를 이용한 지·공 입체관리기법 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를 고려한 교통통제와 GPS, CCTV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화상관리시스템은 위해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X-ray 소화물 검색기 등 첨단과학 검색장비를 최초로 도입·운영하는 등 선진화된 경호역량을 널리 과시하였다<sup>12)</sup>.

### 3.2. 국제정상회의의 사례분석

국제 테러리즘의 팔레스타인 민족해방 기구 (POL)의 아라파트 자치정부 수반과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9월 26일 어렵게 성사된 회담을 갖고 휴전감시공동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그 후 잇따른 팔레스타인 측 자살테러공격과 요인암살 그리고 이스라엘 측 보복살인은 이러한 평화노력의 실천을 가로막았다. 북아일랜드공화군(IRA)은 벨파스트 Royal Victoria호텔과 북아일랜드와 런던 쇼핑센터와 기타도시들을 습격 테러자행, 2000년 2월 폭탄테러를 저지르는데 이어 7월 신교도 전통적 행사인 <드림크리행진>행사에서 신교도들이 충돌 3명이 사망했다. 인도-파키스탄 간 카슈미르 분쟁 2001년 8월15일 인도 독립기념일에 바지바이 인도 총리가 파키스탄의 평화회담 결렬을 비난하는 가운데 카슈미르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테러가 발생 20여명이 사상했다<sup>13)</sup>. 9·11테러리즘 계기로 신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가치로 등장함으로써 세계 각국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대 테러리즘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 3.3. 국제정상회의의 경호안전 문제점

1) 안전 유관기관간의 유기적 협조관계 부족 전반적으로 행사 운영을 위한 임시 시설 준비가

미흡했고 행사장 시설 운영·관리 면에서 다소의 경험이 부족하였다. 운영본부 시설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또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 및 역할분담이 다소 미흡하였다.

전반적으로 식전·식후의 각종 행사 시 충분한 사전 리허설 부족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노출하였고 업무 협조체계가 다소 미흡하고 업무 분담이 명확히 정리지 않아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및 사전에 명확한 업무분담이 필요하겠다.

## 2) 인력운영의 부실

운영인력(자원봉사자, 지원인력, 단기채용) 수요의 적정성과 자원봉사자 교육·근무 등에 대한 경험 축적을 착안사항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인 면에서 문제없이 종료되어 많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고 열정(노력)은 느껴지지만 제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

자원봉사센터가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센터로서 잘 운영되었고 자원봉사자 대우의 성의 있는 마무리는 잘 되었다. 하지만 인력수요를 부족하게 결정하여 현실과 괴리가 발생했고 최소한의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미흡하였다. 또한 자원봉사 결석자의 과다로 저조 현상이 발생하였다.

## 3) 운영과 안전의 상호이해 필요

운영과 안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겠다.

운영 측에서는 “안전이란 운영의 기본토대 위에 그 여건에 맞추어 대회 분위기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전 측에서는 “대회의 성공은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운영은 안전판단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안전과 운영은 수레의 양 바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국제정상회의의 경호안전활동 대책방안

### 4.1.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대규모 국제정상회의의 시 경호안전 활동의 기본 틀은 경호대상국 국가원수에 대한 위해 가능성 및 정확한 정보판단

에 의해 이루어진다. 미국은 국제정상회의의 개최의 경우 호텔 선정에서부터 경호제공 수준 결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정보판단을 근거로 하여 가능한 모든 테러 위협요소를 사전제거, 행사의 완벽성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적인 안전대책 전략이 시급한 이때, 우선 국제정상회의의 중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 및 테러가 어떤 유형이 될 것인가를 대인, 대물, 지리적 취약요소에 대한 다각적인 사전연구 활동 등을 통하여 유형별 대책이 가능하도록 모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4.2. 국제공조 원활화

국제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당 기간 동안 행사 안전 활동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가 발생할 경우 사태해결 과정에서 정치적·외교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치국가가 받는 경제적인 타격은 심각하다고 하겠다. 특히, 9·11테러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차별적인 테러 사건으로 인하여 각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서 지난 2002년 11월 12일 발생한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테러 사건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어 발생한 필리핀 폭탄테러(2002.10.20)로 인해 필리핀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국가적 위기로 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sup>4)</sup>.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테러행위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과 같은 것이어서 국제적 공동대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국제행사를 위한 각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국가정보원, 대통령 경호실, 경찰, 군이 각국의 보안기관들과 테러퇴치를 위한 정보 및 방법 교환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사법 기관과도 국제체포영장 발급 및 수사 진행 등의 법적 공조체계가 갖추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4.3. 비정부 기구에 대한 집회시위 관리

세계는 지금 변화의 소용돌이를 통과하고 있으며 환경, 여성, 인권, 문명권의 충돌 등 이른바 ‘글로벌 이슈들’ 해결에 높은 관심을 보유하고 있어 NGO 활동이 더욱 강한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행사 5건 중 4건이 NGO의 과격한 시위로 결렬 또는 진행이 실패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바, 국제정상회의의 시 원만한 진행도 중요하지만 참석하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 대한

경호안전 분야도 똑같이 중요하다 하겠다.

국제정상회의를 유치하고 주관하는 주최국의 공안당국이나 경호·경비 유관기관은 원만한 회의 진행 못지않게 각국 정상들의 안전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 4.4. 전문요원의 활용 및 양성

국제정상회의 개최 시 사전 안전 조치(예방경호)가 급선무이지만 이에 못지않은 것이 국제 감각을 겸비한 행사전문요원 양성이다. 단순 행사요원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회의 진행 전문가는 짧은 시일 내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ASEM, APEC 등 국가 주도의 행사도 선진국의 경우는 민간용역 회사에 행사전체를 일임하고 있으며 지난 1998년 영국의 ASEM 행사시는 회의장 경비 문제를 전직 공안요원이 운영하는 경비회사에 일임하여 행사를 치루바 있다. 정부주도의 官행사는 자칫 타성에 빠지거나 경쟁력 부족으로 과다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 영국 측의 견해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회의 문제를 전담한 전문요원 양성 기관 설립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점에 온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상회의는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기획을 요구한다. 따라서 준비된 단체만이 유치할 수 있고 행사도 성공리에 마무리 할 수 있다. 지금부터 각 도시 및 단체들도 지역 내 대학들과 연계해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를 강구해야 하며, 지역 내 공안 요소들과도 면밀한 사전검토와 준비로 행사 유치에 따른 “안전부담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 5. 결론 및 제언

비록 우리의 경우 행사 여건이나 전통성·민족성이 미국과는 상이하지만 다가오는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민간조직의 참여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그 형태와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제정상회의 시 경호안전에 있어 효율적인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국제정상회의 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 및 테러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통하여 유형별 대책

이 가능하도록 국가테러정책 기구 통합 운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국제공조의 원활화이다.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안전 활동을 위하여 테러가 발생할 경우 외교적, 경제적인 타격은 심각하다. 이러한 테러행위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과 같은 것이어서 국제적인 정보화 공유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비정부 기구에 대한 집회시위 관리이다. 국제정상회의 중 NGO의 과격한 시위로 인해 결렬 또는 진행이 실패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행사 시 원만한 진행도 중요하지만 참석하는 정상들에 대한 경호안전 분야를 상기시켜야 한다. 정보의 유연성 확보로 국민적 협조와 참여의 유도가 필요하다.

넷째, 전문요원의 활용 및 양성이다. 행사 개최 시 사전 안전 조치를 위해 행사전문요원의 양성이 필요하다. 즉 민간경호경비의 활성화법,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전문 연구 기관의 설립과 인재 양성을 해야 한다.

국제정상회의 개최 시 경호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최국만이 아닌 참가국 관련 요원 모두가 합심해서 경호적으로 완벽한 결론 창출이 최대의 연구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정상회의 시 성공적인 경호안전 대책방안으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기존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특히, 기술적으로 일반대중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박용석, “국제 국제행사시 요인 경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p. 1, 1999.
- 2) 이상철, 「안전대책론」, 용인대학교, p. 100.
- 3) 박용석, 전개논문, p. 35.
- 4) 경향신문, “IPU 서울총회 내일개막-93국.10개 지구 14일까지 개최”, 1997.04.09. 재편집.
- 5) 국회사무처, 서울: 국회사무처 국제기구과. IPU 서울총회 결과보고서, pp. 472~473, 1999.
- 6) 국회사무처, 전개서, pp. 475~476.
- 7) 경찰청, 경찰백서, 외국의 대테러 안전활동: 미국, 독일, 프랑스 편, p. 120, 1999.

- 8) 경찰청, 경찰백서, 전계서, pp. 120~122.
- 9) 경찰청, 경찰백서, 전계서, pp. 124~125.
- 10) 경찰청, 경찰백서, 2001 : 특집 : 경찰개혁 1년 성과, p. 260, 2001.
- 11) 경찰청, 경찰백서, 전계서, p. 262.
- 12) 경찰청, 경찰백서, 전계서, p. 265.
- 13) 서상열, “국제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경호경비연구, 제9호, p. 115, 2005.
- 14) 조광래, “국제스포츠 행사의 테러행위 대책”, 경호경비연구, 제6호, p. 25, 2002.